

■ '트루맛쇼' 상영회에서 만난 김재환 감독

“주방장·사장에 손님까지 가져왔다”

서민들의 가장 친근한 TV프로그램인 방송 3사의 맛집 프로그램에 감춰진 비밀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영화는 미디어 권력인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맛집 브로커의 돈을 매개로 한 부적절한 연결고리로 '맛집'이 아닌 평범한 '음식점'이 맛집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을 비웃는다.

지난 17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마련한 정기상영회에서 '트루맛쇼'를 만났다. 영화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나는 TV에 나오는 맛집이 왜 맛이 없는지 알고 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영화에서 음식점들은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네고 맛집 프로그램 방영 일자를 정한다. 맛집의 메뉴도 방송사 작가나 브로커가 식당의 특징이 될 만한 것을 직접 개발한다. '맛보다는 '재미'가 중요하다. 영화에 등장하는 브로커 임씨가 맛을 생략하고 만들어 낸 '캐비어 삼겹살'은 30회 이상 방송됐다고 한다. 또 임씨는 맛집의 주방장, 사장, 손님 등 1인 다역으로 백화 이상 방송에 출연하기도 한다.

맛집 손님들도 전부 가져다. 방송을 위해 섭외된 방송전문(?) 손님들이다. 맛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도 작가가 지어낸 멘트다. 고발 프로그램에서 불량 음식점으로 나왔던 식당조차도 맛집으로 둔갑한다. 시청자들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인다.

에서 핫(Hot)으로 바꿨다. 시청률을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방송이 나온 뒤 식당 문을 닫고 영화도 끝난다.

김감독은 “외부제작사들은 ‘양심을 팔 것인가’, ‘생존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 생존을 위해 양심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한다. 결국 삶은 윤락하게 해주는 미디어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교양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영화는 ‘트루맛쇼’의 형식을 빌렸습시다. 트루맛쇼에서 주인공 남자와 남자의 인생을 조각하는 빅브라더 등 2개의 공간이 존재했다면 트루맛쇼에서는 맛집과 방송사,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몰래 카메라, 3개의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들

작가가 지어낸 멘트에 불량 음식점도 맛집으로 둔갑 상영 후 방송노조·외주제작사 침묵... 2탄은 의사 폭로



처음 경쾌한 음악과 달리 엔딩 크레딧을 올려다보는 관객들은 '불편한 진실' 앞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영화가 끝난 후 MBC PD 출신인 김재환(42) 감독이 건넨 첫마디도 “몰라야 할 것을 알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였다.

“트루맛쇼는 거대한 미디어 권력과 힘 없는 외주제작사들 간의 잘못된 상하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방송사들이 실제 작비의 50~90%만을 지원하고 저작권까지 챙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들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양심을 팔고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독립제작사를 만들면 협찬 없이는 직원을 월급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큐 제작을 위해 제작진은 실제로 경기도 일산에 '맛'(Taste)이라는 식당을 차린 뒤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건네고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메뉴는 청양 고추를 고기보다 많이 넣은 '죽말 돈까스' (죽든지 말든지 돈까스), 식당 이름도 맛

의 방식으로 그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몰래카메라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기획 동기에 대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하지 않아 내가 하게 됐다”며 “나와 미디어 권력과의 싸움을 다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표현하지만 미디어 권력에 맞서 최초로 승리하는 사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상영 이후에도 침묵하는 방송노조와 뒷걸음치는 외주제작사들에게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외주가 끊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작사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들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로부터 70% 이상의 외주를 받고 있는 저 또한 조만간 계약이 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방송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일부 맛집 프로그램이 종방했고, 가짜 손님들이 사라졌다. 물론 맛집 홍보대행사들도 잠수를 탔다.

김 감독은 “트루맛쇼는 역지사지 퍼포먼스의 제1탄에 불과하다”며 “2탄은 의사가 방송사에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검은 고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47회 전남도미술대전 1009점 입상

한국화 박지영·서양화 고윤숙·서예 김은선·사군자 이태재 씨 대상

전남도-예총, 10개 부문 수상자 발표



한국화 대상작 박지영 '겨울날의 여백'



서양화 대상작 고윤숙 '어떤 형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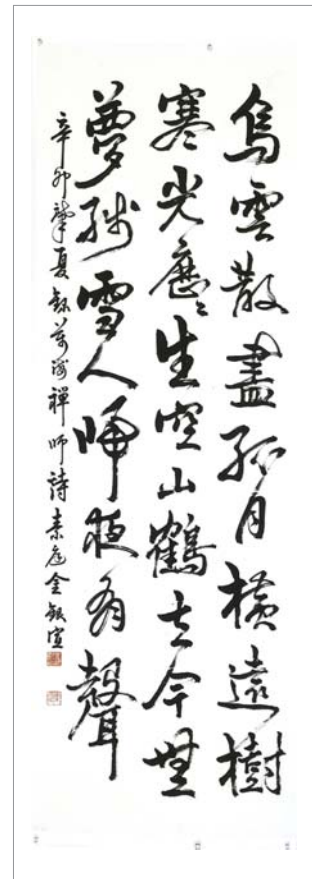
제47회전남도미술대전에서 '겨울날의 여백'을 출품한 박지영(31)씨가 한국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과 전남예총(회장 하철경)은 20일 심사를 통해 한국화, 서양화, 서예, 서각, 사군자(문인화), 사진 등 10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총 1871점이 출품됐으며 대상 4점, 우수상 10점, 특선 376점, 입선 619점을 선정했다. <수상자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고>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서양화 고윤숙 '어떤 형상3' ▲서예 김은선 '만해 한용운의 시' ▲사군자 이태재 '나들이하기 좋은 날' 등이다. 서각, 사진, 공예, 조각, 건축, 시각디자인 부문에서는 대상을 내지 못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대상은 각각 500만 원, 우수상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7월15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또 같은 달 14~19일과 24일~28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수상작과 추천작가, 운영심사위원의 작품을 부분별로 전시한다. 문의 062-351-750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예 대상작 김은선 '만해 한용운의 시'



사군자 대상작 이태재 '나들이하기 좋은 날'

18광주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광주 브랜드공연

자스민 광주” 기자간담회

7월 2(토)~3(일) 에든버러공연 8.13(토)~8.19(일) 광주문화재단

'광주 브랜드 공연' 간담회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하는 티악 퍼포먼스 '자스민 광주' 간담회가 음악감독 원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남도 씨김제희와 음악을 중심으로, 5·18과 중동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는 진혼극 형태로 구성된 '자스민 광주'는 7월 2~3일 광주에서 초연되며 8월 13~18일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cinus.com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6월 22일 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 30% 확 늘어난 앞뒤 좌석간격
- 프리미엄 인테리어, 아름다운 홀
-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 커피 LAVAZZA 런칭
- 더 넓고 더 편안한 주차공간
- 풍성한 차요즘 이벤트(김장음식, 무료상차, 김장상차)

ARS 1544-0070
1588-7941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30% 확 늘어난 앞뒤 좌석간격 TAKE OUT ITALY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더 넓고 더 편안한 주차공간

내부 리뉴얼 공사로 인해 6월 21일 까지 임시휴관합니다.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1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슈퍼에이트 (12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그린랜던-반지의선택 (15세)

6관 프리스트 (15세)/화이트 (15세)

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8관 썬니 (15세)

9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콩푸팬더2 (12세)

10관 그린랜던-반지의선택 (15세)

구. 런던역국사거리 1544-0600

그분이 돌아오셨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썬니 (15세)

2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3관 슈퍼에이트 (12세)

4관 프리스트 (15세)/콩푸팬더2 (12세)

5관 모비딕 (15세)/썬니 (15세)

6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7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그린랜던-반지의선택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